

한국인의 문화에서 이해하는 성찬예식 (성만찬)

김명래 전도사 (한인여선교회전국연합회 총무)

2013년 선교학교 영성교재인 “부르심: 구별된 자의 삶과 사회정의의 실천”에 대한 인도자 지침서에 “한국인의 문화에서 이해하는 성찬예식”에 대한 저술을 요청받아 부록으로 만들어보았다. 본 내용이 인도자의 참고자료로서 활용되어지기 바란다.

한인연합감리교회는 “성만찬을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고 믿는다. 이러한 의미에서 성만찬은 부활 축제에 참여하는 것이다. 연합감리교회는 은혜의 수단인 성만찬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어린이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다”는 연합감리교회 신학적 전통을 따르고 있다. (인용: 성만찬 예문 I, 찬송과 예배)

사도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1:23-26에는 성만찬에 대해 자세한 내용이 서술되어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 준 것은 주님께로 부터 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드시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23-26, 표준새번역 성경).

예배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와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거룩한 예식으로써, 성찬예식, 곧 성만찬에는 크게 2가지 의미가 있다.

1. 예수님은 우리들이 자신이 행한 하나님 나라 사역을 기억하고, 예비해 놓으신 축복을 그 사역을 통해 받을 수 있도록 성찬을 재정하시고, “이일을 행하고 나를 기억하라”고 명령하셨다. 그러므로 예배를 통해서 성찬예식을 거행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기억하는 것이며,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의 의무이며 교회의 사명이다.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실천하는 믿음 · 소망 · 사랑

2. 예배는 감사와 찬양과 함께 성도들이 하나님께 자신을 산 재물로 드리는 시간이다. 그러므로 자신을 드리려면 예수님과 영적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우리는 성찬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속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화답하며 주님과 새 계약을 맺게되는 것이다.

성찬예식은 중요한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오늘날 교회에서 정기적으로 행해지는 성찬예식이 형식적으로 되지 않으려면 성찬예식의 영성이 회복되어야 한다. 성찬예식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심을 느낄 수 있어야한다. 성찬예식을 통해서 3가지 영성을 경험할 수 있다. (인용: 성실문화 29호 2001-2002, 성만찬의 영성)

1. 성찬예식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가졌던 공동체 영성을 배울 수 있다. 초대교회의 성만찬을 보면 공동체가 함께 식사를 하며 친교를 나누는 시간이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음식을 나누며 주님안에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를 경험하였다. 그러므로 성찬예식을 통해서 교회는 한 몸이 되어 신앙공동체를 형성해 나갈 수 있다.

“이 떡을 나눔은 우리의 사랑을 나눔이니 그대들과 나는 한 옷을 가진 벗이라. 그대들과 나 한 하늘에서 그대들과 나의 가슴에 한 피가 흐르고, 그대들과 한 하늘을 살 듯이 그대들과 나의 갈 곳도 오직 한 곳이라” (인용: 백창우 글, 곡)

이 곡의 작사자는 성찬예식을 통해서 밥상 공동체에 익숙한 한국 문화 속에서 떡과 포도주를 나눔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공동체의 영성을 고백하고 있다. (인용: 성실문화 29호 2001-2002, 예배와 영성)

2. 성찬예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영성을 경험하게 된다. 개신교에서는 떡과 포도주는 예수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의미한다. 성찬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 오시고, 자녀 삼으시고, 고난받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사 다시 오실 주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연합하는 영성을 경험하게 된다. (인용: 성실문화 29호 2001-2002, 예배와 영성)

3. 성찬예식을 통해서 사랑과 화해와 평화를 경험하고 세상에 나가 경험을 나누어야 한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사람과 이방사람이 양쪽으로 갈려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에베소서 2:14, 표준어 새번역 성경).

예수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을 가로막고 있는 미움과 분열과 불안을 없애시고 사랑과 화해와 평화를 알려주심을 성찬예식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다. 성만찬을 통해서 이러한 영성을 경험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사랑과 화해와 평화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야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

또한 교회의 전통적인 성만찬의 정신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참여자들에게 현대 문화 속에서 부활의 기쁨과 성령의 자유함이 가득한 감동을 주는 성찬예식을 경험해 보자. 이러한 경험은 우리들을 더욱 단단하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만들어준다. 아래에 한국 문화에 입각한 성찬예식 예배를 제시하였다. 인도자의 입장에 따라 예배를 다양하게 창조적으로 재 조명 할 수 있다.

성찬예식 예배문

성찬예식 준비

- - 성만찬에 사용하는 빵과 포도주 대신에 한국적인 떡과 포도주, 떡과 포도주스, 떡과 막걸리, 떡과 식혜, 떡과 머루즙, 떡과 전통음료, 등을 사용해 보자.

이에 대해 신학적으로 문화적으로 생각을 넓혀 다음과같이 생각해 보자. 만약 신앙적으로 불편하게 생각되면 현재 교회에서 사용하는 빵과 포도주스를 사용하자.

“우리는 성만찬에 떡과 막걸리를 사용하기 전에 떡과 막걸리가 한국 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주는가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우선 떡과 막걸리는 한국 사람의 주산물인 쌀로 만들어 진다. 고대 한국인들은 AD 33년경부터 쌀을 경작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전통 의식에서 가장 귀하고 적합한 희생 제물로 간주해 왔으며 명절에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곡식으로, 한국 사람들의 심성에 깊이 자리 잡아왔다. 쌀로 만들어진 ‘떡’이라는 음식이 한국 사람에게 주는 의미는 남 다른 깊은 뜻이 있다. 또한 농주라고도 불리는 막걸리 역시 쌀로 빚어진다. 한국이 농업 국가였던 시절에 막걸리는 농민들에게 있어서 가장 보편적이고 인기 있는 술이었다. 한국 농민들은 막걸리를 마시면서 배고픔을 달랬고, 힘든 농사일의 지루함 역시 잊곤 했다. 한국 문화에 있어서 막걸리는 단순한 술이라기보다는,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 있는 농민들과 함께 했던 가장 보편적이고도 인기 있는 음식이었던 것이다.

생물학자들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사용하셨던 빵과 지금 서양 기독교인들이 16세기 이후로 사용해 온 빵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한다. 또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포도주는 지금의 포도 주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 당시에 가장 대중적인 음식이 유대인의 빵과 포도주였다는 사실이고, 예수님께서 이 음식을 최후의 만찬에 사용하셨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 전통 문화에 있어서 가장 보편적이고 대중적인 음식은 무엇인가? 이는 쌀로 만들어진 ‘떡과 막걸리’일 것이다. 쌀이라는 곡식은 서양 사람들이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 보다 훨씬 더 보편적인 동시에 더 나아가서는 영적인 음식이기도 하다. 마사오 타케나카(Masao Takenaka)는 쌀이 아시아인들에게 주는 의미를 다음과 같이 피력하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은 쌀이다>라고 이야기 할 때, 쌀을 경배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우리가 쌀로 만들어진 음식을 먹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상징으로 받아드린다는 말이다.” 이처럼, 한국 문화에 있어서 쌀은 물질적이면서 동시에 영적인 삶의 근원이다. 따라서 서양인들이 빵과 포도주를 성만찬에 사용하듯이, 한국 기독교인들이 쌀로 만들어지고 가장 보편적인 떡과 막걸리를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 성만찬의 성체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하겠다” (인용: 이승무 목사 글, 2009년 청암크리스찬 아카데미 103호)

- - **성찬예식의 음식**으로 바구니에 한국 도자기(청자나 백자)로 만든 접시에 떡을 담고, 대접에 음료를 담는다. 제단을 덮을 하얀 보자기도 준비한다. 참가자가 100명이 넘으면 바구니 2개를 준비하여 떡과 음료를 담는다.

- -성찬예식에서 집례자와 성만찬을 보좌하는 사람은 한복을 입는다.
- -징을 준비한다.
- -파워포인트 화면에 눈에 버를 심고 자라나 추수하는 사진들과 포도덩쿨이 자라나 수확하는 사진들을 보여준다. 배경음악으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사용한다.
- -성만찬 집례자가 아래의 기도문을 인도한다.
- -성찬예식을 시작하는 징을 1번 울린다.
- -집례자: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주인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이 땅의 인간에게 노동과 수고의 즐거움을 허락하사 그 열매로 이 떡과 음료를 주셨으니 이것이 생명의 떡과 음료가 되게 하옵소서. (인용: 한국신학마당)
- -찬송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다같이 부른다.

성찬예식에 초대

- -스크린에 예수님 당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장면을 보여준다.
- -찬송은 “오소서 오소서” (찬송과 예배 148장)를 피아노로 연주한다.
- -집례자: 오늘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들을 성만찬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축제로 지키고, 성만찬을 통해서 먹고 마시는 것으로 주님과 하나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 -찬송: “오소서 오소서”를 다같이 부른다.

성찬예식 거행

- -스크린에 성만찬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준다.
- -집례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우리가 이 떡을 먹으며 (한 손에 빵을 든다.) 이 잔을 나눌 때마다 (한 손에 잔을 든다.) 주님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기억하고 전파합시다.
- 회 중: 주님!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선포하며,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나이다. 주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심을 우리가 고대하나이다. (인용: 한국신학마당)

- - 커다란 바구니에 떡과 음료를 담아서 두사람이 함께 들고 성만찬 제단으로 나온다.
이때 찬송 “한 떡을 떼며” (찬송과 예배 237장)를 피아노로 연주한다.
- - 참석자가 100명이면 바구니를 2개 준비하며 두곳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성도들이 떡을 집어 음료에 담가서 먹은후 제단앞에 나가서 무릎꿇고 기도한 후 돌아가게한다.
- - 찬송: “한 떡을 떼며”를 다같이 부른다.
- - **집례자:** 다같이 한마음으로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오 주 우리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안에서 세례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이 성만찬에 참여한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게하여 주소서. 또한 교회의 완전한 일치를 향해 일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화해와 평화를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존귀와 영광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올립니다. 아멘.

파송과 축복 나누기

예배 참가자들은 서로 악수하며 “평화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라고 인사한다.